



2년 연속 HPAI로 오리고기 공급망 불안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지난해부터 재고량 감소세 지속...물량 부족

통계청에 따르면 1/4분기 오리사육 마릿수는 570만 6천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만 8천 마리(45.6%) 증가했다. 전분기 104만 6천 마리보다는 15.5%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HPAI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대적 증가세로 보인다.

6개월 이상 종오리 사육 마릿수는 2020년 12월 70만 9천 마리, 2021년 12월 63만 5천 마리, 2022년 3월 54만 마리로 줄어들었다. 이는 영국에서 발생한 HPAI로 인해 원종오리 수입 차질로 인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2020년 12월 721만 9천 마리에서 2021년 12월 611만 7천 마리 감소했으며 올 3월에는 516만 6천 마리로 줄어들었다.

이에 지난 10년간 오리 수급 동향을 살펴봤다.

갈수록 위축되는 오리사육 기반

통계청에 따르면 오리 사육수수는 2012년 1천300만 수 (1/4분기 기준)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발생한 HPAI로 인해 2014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16년 951만 수로 1천만수 가까이 증가했지만, 또다시 HPAI로 500만수 대로 떨어졌고 2020년 810만 수로 회복됐다.

하지만 2021년 또다시 발생한 HPAI로 인해 390만 수로

떨어졌고 올해 3월 기준 570만 수를 회복했다.

종오리 사육 수수 역시 오리 사육수수와 비슷한 추세를 반복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1/4분기 기준) 150만 수까지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69만 수까지 하락한 이후 70만수대를 유지했다.

이후 2019년 80만 수까지 회복했지만, 지난해 50만 수로 하락했고 올해는 54만 수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사육수수 증가로 도압량 늘고 공급량 증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4월 중 오리 도압 마릿수는 441만3천 수로 나타났다. 전월 387만 수에 비해 14%가 증가했다.

전년 동월 376만 수에 비해서는 17%가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HPAI 발생으로 줄어들었던 오리 사육수수가 점차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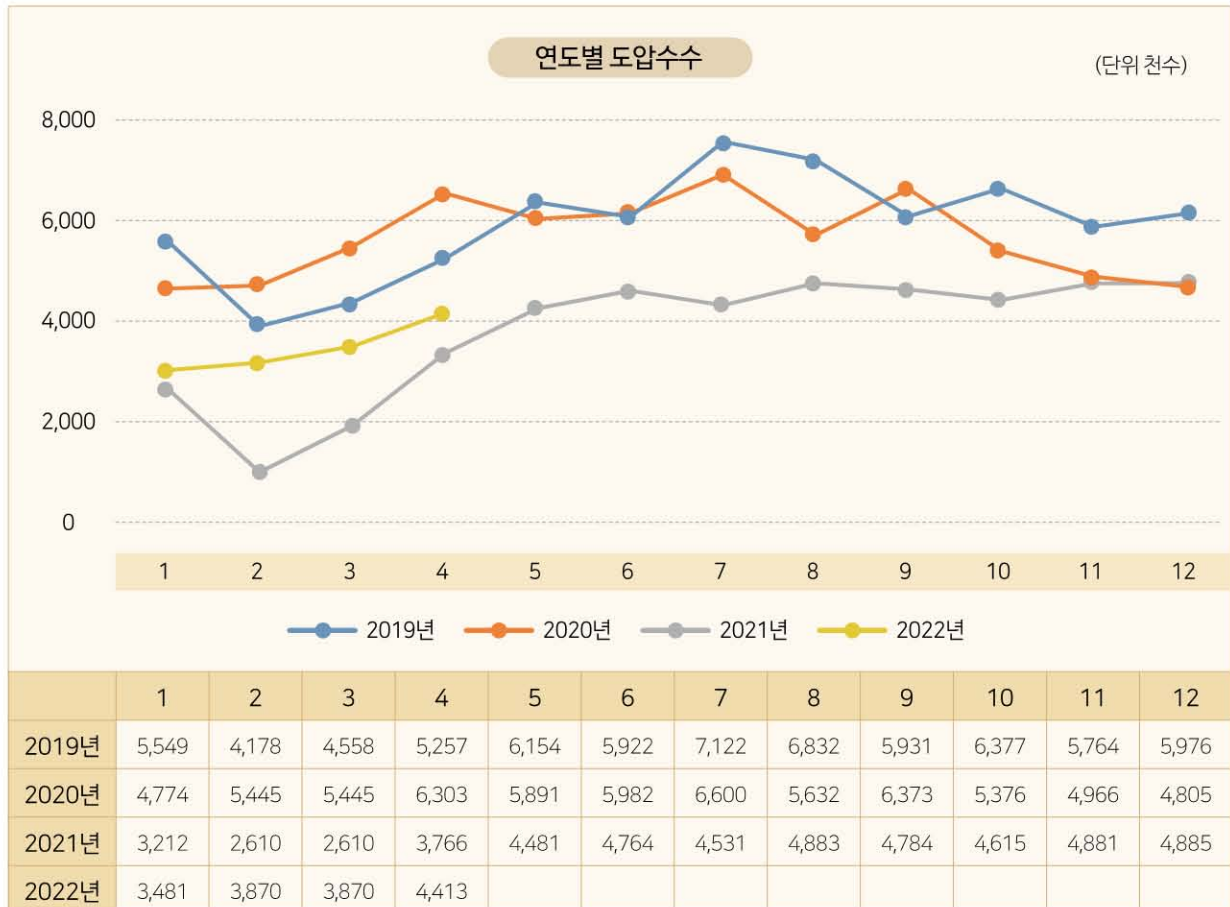
공급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협회 조사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오리고기 냉동 재고량은 69만7천 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냉동 재고량은 2018년 말 400만 수였으며 2019년 1월 548만 수를 기록한 이후 500만수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20년 632만 수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 HPAI 발생 이후 사육수수 감소에 따라 냉동 재고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2021년도 역시 지속해서 냉동 재고량이 줄어들어 12월 말 94만7천 수로 줄어들었고, 올 1월 69만 7천 수로 줄어들었다.



오리 산지가격 고공행진, 새끼오리가격 상승

HPAI로 인해 국내 오리고기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오리 산지가격도 불안정한 모습이다. 2012년 이후 연평균 산지가격은 5천~7천 원대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해 왔다. 2019년 6천 원대를 유지했지만 2021년 1만 원대로 급등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끼오리가격이 고공행진이다. HPAI로 인한 살처분 수수 증가와 영국에서 발생한 HPAI로 인해 원종오리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새끼오리 가

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800원대까지 하락했던 새끼오리가격은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12월 1천800원대로 상승해 연평균 1천364원을 기록했다.

올해 2월까지 1천800원을 유지하던 새끼오리가격은 3월 1천729원, 4월 1천710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